



꿈꾸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지만 뜻을 같이하는 우리들은 밝은 내일이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 진흥을 통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한다”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증영총괄이사
이상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63년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4년간을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선도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협회의 산업보건 발전사를 연도별로 요약해 보면,

1960년대에는 산업보건기반 형성기이다.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정회원으로 1963년, 협회가 창립되었으며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 직무교육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기반을 형성했다. 또한 전국 주요 시·도에 지부를 결성하고 영등포 공장지역을 시범지역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산업보건실태조사,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산업보건기반 구축기이다. 전국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복지지원 8개소를 개설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보건관리를 실행했다. 이후 근로자복지지원은 전국 6개소의 산업보건서비스센터로 개편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등을 수행하였으며, 1979년에는 아시아산업보건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를 유치하여 협회의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는 산업보건 성장기반 확충기이다. 산업보건센터를 8개소로 증설하였으며 월간 <산업보건>의 창간과 제1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 개최 등 더욱 진일보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외에도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 보건진단기관협의회 /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회 본부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시료분석을 전담할 수 있는 중앙분석실험실도 설치했다.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지원체제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에는 산업보건 성장 발전기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 관리를 주관하여 시행했다. 증설된 12개의 지역산업보건센터는 특기협, 일기협, 작기협, 보대협 등의 주요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이들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산업보건 종합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다.

2000년대에는 산업보건 고도 성장기로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검진·측정의 기장비 시설 및 연구기반이 갖추어져 산업보건서비스의 질 향상도 이룩할 수 있었다. 2002년 ‘한마음혈액원’을 개원 / 2008년에는 ‘제1회 산업보건학술제’를 개최 / 2009년 산업보건관계자 직무교육기관 지정 등 더욱 다양한 산업보건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다.

2010년대에는 산업보건 도약기로,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위험성 평가,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등 자주적 보건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업보건 기관평가에서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전국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직원들의 리더십·전문성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재육성 로드맵을 구축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들이 국내 최고의 산업보건전문기관인 협회에 많은 도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5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협회의 나아갈 방향을 반드시 제시하고 추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협회의 효율적 경영개혁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와 내부역량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전략경영체제를 반드시 구축하고 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지원체제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전략방향과 과제를 재검토하고 협회 본연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정립해야 한다.

둘째,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열린 경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신성장 잠재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신규사업 개발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사회공헌활동 강화로 사업과 연계하여 협회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내·외부 고객 만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 역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그곳을 향해! 함께 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

